



김성우 취재부장



10·27 교훈과 'MB형 법난' 예방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 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7월 15일 입법예고됐다. 법난의 실제적 진실규명과 역사교육관 건립 예산확보 등 난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늦게나마 불교계의 명예회복이 가능하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10·27법난은 1980년 당시 합동수사본부 산하 합동수사단이 불교계 정화회 명분으로 '불교계 정화수사계획-45계획'을 수립, 조계종 스님 등 153명을 강제연행하고 군·경병력 3만 2000여명을 투입, 사찰 5731곳을 일제 수색한 교권유린 사건을 말한다.

이와 같이 승단이 정치권력으로부터 탄압을 받은 사건은 불교사상 여러 차례 발생했다. 중국에서는 '삼무일종(三武一宗)의 법난'이라 불리는 4번의 큰 법난이 회자될 정도다.

한국불교사에서는 중국처럼 대규모 인명살상은 없었지만, 조선시대 이후 법난에 준하는 박해를 받았다. 조선왕조가 막을 내리고 일제강점기의 왜색불교화 정책을 어렵게 견뎌냈지만, 현재까지도 불교는 순탄치 않는 역사의 길을 걷고 있다.

미국과 친일세력을 등에 업고 초대 대통령이 된 이승만 정부는 한국전쟁직후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 비구-대처 분쟁을 촉발시켰으며, 1979년 12.12쿠

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정권은 사회정화와 미국으로부터의 정통성 확보라는 미명하에 10·27법난을 일으켰다. 비록 법난은 아니지만, 세 번째 장로대통령을 맞은 요즘도 이명박 정부의 반복되는 종교편향 행위로 불교계는 목살을 앓고 있다.

서울시장 재직시절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하겠다'고 한 이대통령이 대한민국까지 봉헌하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하지만 잇따른 종교편향사건에는 대통령의 종교를 의식한 고위공직자들의 줄서기 행태가 엿보여 우려된다. 게다가 촛불집회와 관련된 '사탄의 무리'라고 발언해 물의를 일으킨 추부길 前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에 이어 박영모 목사가 최근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실 행정관으로 들어간 것은 목사출신 청와대 참모가 종교편향의 콘트를 타워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살만하다.

오랜 법난사를 돌아보면 위정자들은 자신의 정치·경제적 위기를 모면하고자 폐불(廢佛)을 단행한 것이다. 최근 불교단체들이 이명박 정부의 종교편향 행위를 감시하기 시작한 것은 또다시 반복될 지 모르는 'MB형 법난'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특히, 불교계는 이런 때일수록 자정능력을 키우고 국민에게 존경받는 승가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아름다운동행' 행사부 설립허가

7월말 홈페이지 오픈...본격 소액모금활동 전개 예정

불교계 최초의 공익법인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지관)'이 7월 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았다.

조계종에서 5억원을 출연한 '아름다운동행'은 다음 주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 등을 마치고 이달 말 홈페이지 오픈과 함께 본격적인 모금 활동도 전개한다.

이를 위해 아름다운동행은 우선 구호, 복지, 통일, 환경, 국제 등 5개분야 기금을 설치하고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각 분야 기금을 조성한다. 아울러 '기부는 선행이 아니라 습관입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소액모금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소액모금운동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365 운동'과 '네모의 꿈 만들기'가 제안됐다.

매일 소액을 기부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부여된 '365 운동'은 360원 정도의 소액을 자동이체를 통해 매일 기부, 1년 내내 기부자에게 높은 만족감과 함께 하나의 아름다운 습관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다.

'네모의 꿈 만들기'는 저금통 모금운동으로 스스로 만들 수 있는 형태의 저금통을 제작 배포해, 기부자가 저금통을 채우면 원하는 사업분야를 선택해 기부하는 운동

이다. 지난 봉축행사 때 배포해 이동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호응을 얻은 이 저금통은 앞으로 유치원, 학교, 기타 단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아름다운동행은 9월부터는 전국 주요사찰을 중심으로 기부 캠페인을 본격 전개할 계획이다. 서울·경기지역 등 약 10여 개소에서 재단을 홍보하는 한편, 모금 및 기부자 배가운동도 펼칠 예정이다.

아름다운동행 원석준 팀장은 "지난 6월, 그동안 타단체에 기부해오던 이명박 정부의 재단설립 소식을 듣고 찾아와 500만원을 전달하며

투명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기부문화 정착과 확산에 기여해 달라고 부탁했다"며 불자들과 시민들의 많은 동참을 기대했다.

조계종은 지난해 8월 총무원회에서 아름다운동행의 설립을 결의했고, 올해 3월 25일 설립발기인총회를 개최해 '재단설립 및 법인명 명명, 정관제정, 기본재산출연, 임원선임, 사업계획 및 예산 등 안건'을 처리한 바 있다.

이후 4월 15일 행정안전부에 설립허가 신청을 했으나, 관련 부처간 협의와 기본재산 추가 출연문제 등으로 인해 일정이 다소 지연됐다.

김성우 기자

교구본사 주지회의서 '종교편향 대책' 논의

최근 잇따른 종교편향 사건에 대한 조계종 교구본사 차원의 대책이 마련된다.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은 7월 24일 오후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2008년도 제2차 교구본사주지회의를 열고, 종교편향 대응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조계종 강원, 충청, 호남 지역 본발사 주지스님들은 7월 14일 김포 중앙승가대에서 열린 본발사 주지연수에서 종교편향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 수립과 평화적 촛불집회 보장을 촉구했다.

주지스님들은 "이명박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에 대해 침묵하고 공무원들이 직무수행과 관련, 종교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 개정 등 근본적인 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김성우 기자



7월 17일 태릉선수촌 법당에서 불자 선수들과 함께한 지관 스님(가운데).

북경올림픽 대표 격려법회

지관 스님 태릉선수촌 방문 불자선수 선전 기원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7월 17일 태릉선수촌을 방문해 올림픽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고 격려하는 법회를 열었다.

이 날 선수촌 법당에는 8월 8-24일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하는 불자선수, 임원 54명을 비롯한 1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해 국위선양의 원을 세웠다.

지관 스님은 법회에 앞서 선수촌 챔피언홀을 찾아 이연택 대한체육회장과 이애리사 태릉선수촌장, 이

기등 체육인불자회장 등을 만나 베이징 올림픽 현황보고를 듣고 격려금 및 선물을 전달했다.

지관 스님은 격려법회 법문에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도, 수도 중 마구니를 물리치는 것도 모두 일념삼매로 산란심이 일지 않아야 가능하다"며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도 일념으로 무장해 나라의 명예와 불자로서의 영광을 드높이자"고 격려했다.

노덕현 기자

"5000명 수용 법당불사 매진"

군중특별교구 출범 3년 맞은 일면 스님

"군중특별교구 출범과 함께 한 3년이었습니다. 남은 임기도 군불교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포교 최전방에서 군포교를 담당해 온 조계종 군중특별교구(교구장 일면)가 출범 3주년을 맞았다.

7월 17일 호국원광사(주지) 합현준 법사에서 열린 교구 출범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일면 스님은 "2005년 7월 25일 군중교구가 출범한 이래 체계적 군불교 지원과 군불자 자긍심 고취, 군중법사 위상 및 복지 향상 등을 이뤘다"고 자평했다.

스님은 이어 "육군훈련소 통합 계획에 따라 논산훈련소 내



에 5000명을 수용할 법당 불사가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군중교구는

올해 논산훈련소 법당불사 발대식을 여는 한편, 군중 40주년을 맞아 <군중 40주년사>도 발간하겠다"고 말했다.

일면 스님은 "남은 임기 1년여 동안도 매월 5곳 이상 일선부대 방문 일정을 계속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반영하겠다"고 다짐했다.

조종섭 기자

한·몽 국제학술대회 개최

진각종 회당학회(회장) 해정 정사는 7월 23일 몽골 간단사에서 '한몽의 불교문화'를 주제로 공동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국측에서는 회당학회장 해정 정사, 진각대학원 허일범·김경집 교수가 '한국불교와 육자진언' '한·몽사원의 장엄에 관한 연구' '고려시대 한·몽불교의 교섭' 논문을 각각 발표한다. 몽골측에서는 푸렐바트 몽골 불교미술대학장이 '몽골불교의 예술적 연구'를, 소년바이르 몽골불교대학장이 '몽골불교의 역사'를, 푸렐바트 타벳문화연구소장이 '몽골불교의 수행'을 각각 발표한다. 김성우 기자

"종립학교관리위 정상활동"

조계종 중앙종회 교육분과위원회(위원장 원담)는 7월 15일 제6차 회의를 열고 종립학교관리위원회의 정상적 활동을 촉구했다.

교육분과위원회는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의 이사 2명의 후보를 추천하는 것과 '동국대 신장아 교수 채용관련 의혹 조사소위원회'의 조사를 마무리하는 일 등 당면한 과제가 많음에도 종립학교관리위원회가 소집되지 않아 종립에 명시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 같이 촉구할 것을 결의했다. 김성우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발행·편집인: 박해월 인쇄인: 김승호

110-734 서울특별시 중구 안국동 175-67 한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털 부다피아 www.buddhan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nia.com 온라인서적 예시이문 www.yosi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051)632-0064 대구지사: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055)355-7472 경남남부지사: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062)384-3009 충청지사: (043)732-5560 영주지사: (054)634-3429 전북지사: (063)910-519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칙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www.njutcm.edu.cn

세계에서 제일, 침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동국대의 5배)

국립 남경 한의과대학 학생모집(특차)

조기유학생 모집 초 6·중·고 1, 2, 3학년 (남경사범대학 부속실용학교)

1. 모집요강

학과	학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 의 학 과	5년	20명 (내신 80점 이상)	· 건강진단서 1통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통 (영문) · 입학신청서 1통
석 사 과 정	3년	5명 (평점3.5이상)	· 여권용 사진 10매
박 사 정	3년	2명	
남경재경대 학	4년	20명	· 경제학, 법학, 공학, 외국어, 예술디자인과 등

2. 학교 소개

- 세계 질주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특징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한국식사 제공
- 군입대 연기가능
- 현지 생활 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3.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주지스님 추천자

4.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건강진단서)
- 접수마감: 2008년 8월 20일

5. 문의처

- 주 소: 中國 南京 亞凍 仙林大學城 南京中醫藥大學
- 전 화: 25-86322539
- 팩 스: 25-86798168

◆ 한국상담 안내처: 조계종삼학불교

-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02-511-2026~7, 1080 / 팩스: 511-2028
- 인터넷홈페이지: 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2007년 본과 합격자 명단

- 본과 합격자 -

- ▲강민정(경희대학원) ▲이거성(연세대) ▲한효정(단국대)
- ▲이정화(건국대) ▲서연호(한국항공대) ▲박병수(명지대)
- ▲박영문(명지대) ▲강성우(호남대) ▲이경환(배재대)
- ▲이종환(우석대) ▲김재문(경남대) ▲최중건(UCLA)
- ▲황진영(유성여고) ▲이창영(마산고) ▲황성환(대건고)
- ▲정재형(성문고) ▲박상준(구정고) ▲이상훈(성신고)
- ▲박민수(화서고) ▲이원영(동지고) ▲김인환(인화고)
- ▲박선규(반포고) ▲송미나(광주여고) ▲김민성(휘문고)
- ▲김준호(배문고) ▲김정우(현대고) ▲박은수(대덕고)

- 석사과정 합격자 -

- ▲신병룡(경희대 한의학과) ▲김병호(경희대 한의학과)
- ▲이종섭(경희대 한의학과) ▲송인중(북경중의대 한의학과)

남경중의과대학 자매대학

원 광 대 한의대학 대전 대 한의대학 (분교) 삼화불교 대학림

